

THE LAMP

2021년 03월 더램프 소식지



The Lamp 24호



스리랑카 캔디시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사업 종료하고

2020년 8월 14일 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더램프는 스리랑카 북부의 타밀족 뿐만 아니라 캔디시의 타밀족 차발 노동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 3년간 방과후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2개 군의 타밀족 차발노동자들은 가난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이 지역은 코로나 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어졌고, 긴급지원사업이 간절히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더램프는 이러한 차발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난 3년간 방과후 교육활동을 진행하며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학생들의 낙후된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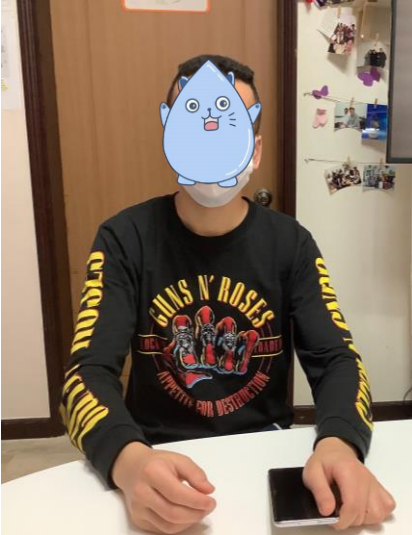


“더램프의 식량 지원으로 오랜만에 삼시세끼를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더램프의 선생님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앞으로도 더램프의 선생님들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램프의 방과후 교육으로 학교가 끝나도 동생과 같이 더램프에서 하고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업



코로나 19는 해외에만 고통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국내 소외계층과 외국인 근로자, 난민, 탈북민에게는 매우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램프는 국내 도움이 손실이 닿지 않는 분들을 찾아 마스크 기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한 기관을 물색한 결과, 난민을 돕는 '예멘 친구들을 위한 사마리안들' 단체에 **마스크 1,500장**을 기부하였습니다.

예멘 친구들을 위한 사마리안들은 2018년 봄의 오랜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예멘인들 집단 입국 하여 국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여러 난민 지원 단체들의 노력으로 임시 난민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예멘 친구들을 위한 사마리안들입니다. 한국 언어가 서툰고 하나부터 열까지 낮 설기만한 이분들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공공기관 업무를 돕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의료지원을 하는 등 진정한 가족으로 대해주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힘든 예멘 난민들은 더램프의 마스크 지원을 받고 너무 감사해 했습니다. 마스크 하나를 두 주 세 주 사용하여 마스크 앞부분이 색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안심된다며 기뻐하였습니다. 작은 사랑이 이들에게 작은 행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램프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더램프는 꾸준히 국제개발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역량 있는 국제개발 단원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으로 부족하여 **박주연 간사**가 새로운 더램퍼(The Lamper)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연 간사는 학부에서 국제개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서 국제개발 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론만을 공부하는 것 같아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싶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일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박주연간사의 꿈과 열정이 더램프 안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표 이영철 고문 이시영

이사 김달호, 김성민, 조영훈, 김철민, 이형우, 이홍규, 최도식, 구자범, 유명호, 성낙승

함께하는 단체 대전제일교회, 신철원중앙교회, 한울교회, 안동교회, 동행하는교회, 고능교회, 뉴라이프교회, (주)유니락, (주)엠에스전기, 주작나무한의원, 위코스메틱스, JBN보험중개